

해외동향

中, 2010년 세계 5대 의약품시장 부상 전망

중국 의약산업은 향후 5년내에 빠른 성장을 거듭해 2010년경에 이르러 세계 5대 의약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세계 의약산업은 유럽 및 미국 등 국가가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세계 처방약 수입액은 연간 10%씩 늘어나, 81년의 700억 달러에서 2000년 3,300억 달러 규모를 이루었다. 아시아지역의 생산력 및 연구개발 수준의 향상, 시장수요량 확대 등에 따라 지역성 업종 재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세계 7대 의약시장으로 2000년 기준 연간 약품소득액은 68억 달러에 달했다. 이 수치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1,500억 달러), 2위 일본(580억 달러)대비 격차가 크나, 중국의 약품시장은 다음과 같은 방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노령화 인구 확대 : 중국 노령화 인구 비중이 지속 확대되어 2020년에 이르러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6%에 달할 것이다.
- 출생률 하락 : 현재 중국의 출생률은 1.8%정도이며 지속적인 2%이하의 출생률을 유지하는 경우 노령화 특징이 더욱 뚜렷해

질 것이다.

- 평균수명 상승 : 현재 중국인의 평균 희망 수명은 70세까지 상승되어 미국과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경제성장에 따라 상품 구매력 수준이 빨리 올라가고 있어, 중국 의약시장의 연간 성장률은 6~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감염 類, 당뇨병 類, 신진대사 類, 심혈관 類 및 항암 類, 면역 강화 類 약품의 수요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내 약품의 연간 영업소득액은 2005년 140억 달러, 2010년 240억 달러에 달해,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은 세계 5대 의약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WTO가입으로 정책의 투명화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내 의약시장의 발전전망이 더욱 밝아지고 있다. 이런 전제에서 중국내 시장 잠재력을 현실화하려면, 제품의 연구개발 및 중국시장 관측전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료원 : 신회사

자료제공 : KOTRA 베이징무역관 유선화 pekktc@kotra.or.kr

정책동향

벤처투자 활성화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벤처투자 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근본원인은 벤처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조성 없이 투자 확대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투자재원의 유입 및 회수방안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벤처투자의 선순환구조 정착 및 성숙단계 진입에 필요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펀드 중심의 벤처캐피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으로써 벤처투자 산업의 자생력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econdary Market 조성 확대이다. 금년 중 우선 500억 원 규모의 Secondary Fund로 '프리코스닥 유동화펀드'를 출범하고 내년부터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 벤처캐피탈협회 내에 '구주투자정보망' 개설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 출자방식의 합리성 제고이다. Fund of Funds를 설립

하고, 정부의 재정출자 방식으로 창투조합에 대한 직접출자 외에 Fund of Funds에 대한 간접출자 방식도 일부 도입한다.

셋째, 벤처캐피탈 조직형태 개선이다. 유한회사 형태의 새로운 벤처캐피탈 제도를 도입하여, 펀드매니저의 투자실적 및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 중심의 선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중 2~3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창업지원법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시장의 신뢰회복 및 벤처투자 인프라 강화이다.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정노력 강화로서 윤리강령과 투자시 검토해야 할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정·보급하여 창투자 준법성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 원리에 따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및 관계기준의 국제기준 부합성을 제고하고 장기투자재원을 꾸준히 개발함은 물론 재정자금 출자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금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2일 이미 Secondary Fund 설립을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방안들도 세부방안을 준비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